

불보살이 펼쳐낸 천상의 하모니... 성지순례 필수코스로

강진 남미륵사를 가다

중국의 마조(709~788) 선사가 남악회양 선사의 법을 이어받고 고향인 사천에 돌아갔을 때 이야기다. 사냥물가에서 꿩을 한 마리 이윳집 노파가 반가운 마음으로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이 애는 마씨 농기구 집의 작은 아들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조 스님은 이 일을 겪은 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자네들에게 권하노니, 고향에 돌아가지 말라. 고향에 돌아가면 도를 이루기 어렵다. 사냥가 옆집 할머니가 나를 어릴 때의 옛 이름으로 부르더라."

마조 대사와 마찬가지로 공자 역시 고향에서 환대 받지 못하고 평생을 주유천하(周遊天下) 했고, 심지어 예수는 고향에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자수성가 해서는 낙향하지 않는 게 하나의 불문율처럼 돼온 종교계에서 고향에 뿌리를 내린 채 큰 불사(佛事)를 일으킨 스님이 있다. 한반도 최남단 전남 강진군 군동면 풍동마을 화방산에 자리한 남미륵사 주지 법흥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인연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각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뤄진다"는 고인의 말처럼, 법흥 스님은 1980년대 초 풍동마을에서 호남불교 중흥과, 한반도의 불국화, 세계의 정토화란 큰 원력을 밝혔다. 스님의 발원은 25년이 지난 2006년 4월 동양 최대(높이 36m)의 황동좌불 아미타부처님 건립이란 결실로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좌대(座帶)에서 불상까지 무려 36m로 아파트 12층 높이에, 전체 무게가 150톤에 달하는 황동좌불은 연꽃 모양의 좌대 높이가 5.6m에 이르고 꽃잎 하나의 높이만도 2.8m에 너비 1.7m, 무게 670kg에 달한다. 중국에서 좌대와 몸체 등을 나눠서 제작한 뒤 현지에서 600t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융접하는 형식으로 건립했다.

웅장한 황동좌불과 함께 조성된 해수관음상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기도처 역할을 하고 있다. 입소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남미륵

사가 삼사순례의 필수코스로 자리잡기까지는 법흥 스님의 원대한 발원과 씩씩한 용맹정진이 바탕이 됐음은 물론, 그동안 숭한 중상, 모략과 이교도의 방해와 고초를 이겨낸 원동력은 중생제도와 불교홍포에 대한 굳은 발심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방산 기슭 1만여평의 부지에 대웅전을 비롯한 관음전, 극락전, 명부전, 산신각, 용왕전, 천불전, 요사채 등 20여 전각이 들어선 남미륵사는 도량 전체가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사찰이다. 게다가 마을과 뚜렷한 경계가 없이 함께 공존하는 점이 이채롭다.

남미륵사의 장엄함은 사찰의 초입에서 만나는 거대한 코끼리상들이 처음 방문한 여행객을 압도한다. 곧이어 부처와 중생이 들어 아님을 뜻하는 불이문(不二門)을 지나 일주문(一柱門)을 통과하자마자 잠



부처님 열반상과 관음전.

호남불교 중흥·한반도 불국화·세계 정토화 원력 세워 1만여평에 20여 전각 들어선 도량 마을과 경계 없이 공존

새와 직박구리 등을 비롯한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관음정근 독경소리와 어울려 천상의 하모니를 연출한다.

은갖 나무로 우거진 숲길을 걸어가면 500분의 나한석상이 좌우로 길게 도열한 채 불자들을 반긴다. 상계루 부근의 18나한 석상들은 저마다 해학적인 표정으로 중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석재로 만들어진 사천왕상은 여느 절에서 흔히 봐왔던 목재상과는 달라서 더욱 강한 느낌을 준다. 곳곳에 자리한 수많은 불상과 13층 8각석탑과 14층 석탑은 불자가 아닌 일반인의 마음까지 움직인다.

대웅전에 참배한 후 뒤뜰을 돌아보니 연못과 함께 꾸며진 용왕당을 비롯해 산신각, 명부전 등이 아담한 정원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이윽고 33관음전에 올라가면 25m 높이의 석불 해수관음상이 아름다운 미소로 불자들을 끌어 실핀다.

다시 대웅전으로 내려와 숲길을 한 참 걸으면 마을이 나타나고 몇 채의 가옥 너머로 웅장한 황동좌불과 관음전

이 모습을 드러낸다. 거대한 불상 앞에 서면 이 몸뚱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본래 부처'를 잊어버리고 형상의 부처를 향해 절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찾아보면 절하는 이와 불상이 둘 아닌 도리를 깨닫는 날이 오지 않을까.

황동좌불 아래 자리한 관음전은 조록 기와 위에 용의 형상을 올려놓은 중국식 건물이다. 법당 내부에는 최문정 불화가무형문화재 48호 단청



장 전수조교가 막 단청 불사를 완료한 상태다. 석조 건축물이 많이 들어간 중국식 건축양식에 맞춰 단청 역시 중국풍의 느낌이 나게 그려졌다. 1만 부처님을 모실 예정인 만불전의 건축양식 역시 독특하다. 천탑 사이로 난 입구를 지나 만불전 도량에 들어서면 지붕 위에 좌정한 황동불상이 찬란한 황금빛을 발한다. 만불전 내부 천정과 벽면 좌우에 그려진 거대한 시왕탱화(十王眞畫)는 지옥을 실감 나게 표현했다.

10여 명의 화공과 함께 만불전 마무리 단청작업에 여념이 없는 최문정 불화가는 "남미륵사의 불상과 전각, 탱화 및 단청은 최고 수준의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불사에 임하기에 불교문화화를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열리는 데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맑고 깨끗한 정신이 남쪽에서부터 한

반도 전체로 퍼지길 기원하는 절'이란 뜻을 담은 남미륵사. 남도의 불교성지이자 국민 관광지로 거듭난 남미륵사가 호남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로 밝고 맑은 청풍(淸風)을 드날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글·사진=김성우 기자



“빈손으로 왔으니 빈 손으로 가야죠”

하루 3시간도 안자고 불사한 남미륵사 주지 법흥 스님

법흥 스님(사진)은 14세에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해 나주의 한 사찰에서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그후 전국의 사찰과 토굴에서 정진과 만행을 거듭하며 득력(得力)해 틈틈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포교를 병행했다. 남다른 용맹정진이 알려지자 경상도 신도들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 호주, 프랑스 교포들이 스님을 만나러 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스님은 23세 때 고향으로 돌아와 남미륵사를 창건하기로 마음먹었다. 1980년부터 불사를 시작하면서 하루 2~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던져 불사에 힘을 쏟았고, 밤이면 발음당(發願堂)에서 용맹정진 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왔다. 1년에 몇 개월씩 단식 수행을 하면서도 운력을 쉬지 않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원력을 보이고 있다.

황동좌불 건립에는 63억 이상의 불사금이 소요됐지만, 한 번도 공사비를 늦게 지급한 적이 없



다. 일본의 한 신도가 24억원 을 보시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들이 힘을 보탤었다. "자고 자면 하나의 탑, 하나의 불상이 새로 생긴다"는 말이 화자될 정도로 왕성한 불사가 진행된 데는 스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함께 천진불(天真佛)과도 같은 무소유 정신이 근원이 되었다.

외형적인 불사와 함께 스님은 틈틈이 불우이웃을 위해 쌀을 보시하고 아픈 환자

들을 치료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도량을 완성한 뒤 어르신들이 일생을 편안히 회향할 수 있는 양로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스님의 남은 서원이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야죠(空手來空手去)."

스님은 "사찰이 완성 돼도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며, 남미륵사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전세계 모든 불자들이 머물며 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서원을 거듭 밝혔다.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국내 초유일의 **보 상감청자투각佛 법륜대(운장대) 완결봉안**

동참접수: 2009년 5월~9월 5일 | 점안식: 2009년 9월 6일(일) 오전 10시 50분
도봉산 성불사 ☎ 954-9848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미륵사 청오 합장-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들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사원을 이루소서

법륜대 소개

제품명: 순금청자법륜대
재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높이: 110cm
원통폭: 45cm
밑받침폭: 30cm
무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 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건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획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역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